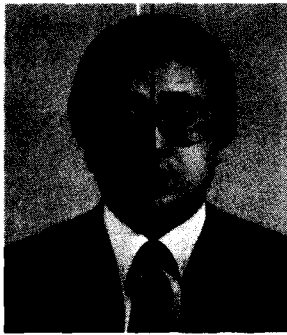


『태평양시대』 와 우리의 미래



정 헌 배

(중앙대학교수 · 경영학박사)

目 次

1. 급변하는 세계 경제조류 - 공존공영
에서 무역전쟁으로
2. 태평양시대의 예언 - 그 허(虛)와 실(實)
3. 준비되어야 할 「태평양시대」
4. 가장 한국적인 기업만이 생존한다.

1. 급변하는 세계경제조류 - 공존공영에서 무역전쟁으로

1970년대에 있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몹시도 휘청거렸고, 그 후유증은 80년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원유가 전격인상」이란 형식으로 표현된 산유국들의 보다 많은 자금확보욕심은, 이제 막 성장의 기반을 굳혀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공업국들의 경제안정에 마저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시작된 만성적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난 세계경기불황은 결국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산유국들의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른바 세계경기는 침체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악순환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세계 선·후진국 공존공영체제 구축에 있어 크나큰 장애가 될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선진공업국들이 자국경제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후진국개발로 인류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도모하자는 「가진자의 책임의식」이 노골적으로 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선·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축소를 위해 모였던 85년 10월의 IBRD-IMF 서울총회에서 보여준 선진공업국(G5)들의 후진 개발도상국(G24)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88년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선진공업국에 대한 「세계경제책임분담론」이 주요 안건으로 부의된 것 등이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어쨌건 경기가 침체되면 될수록 각국들은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수입에 있어 보호무역을

강화하게 되고, 반면 자국제품의 시장 확대 기회 확보를 위해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자국제품 수출확대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 교역에 있어 경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른바 「무역전쟁」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경제상황으로서는 선진국간, 선·후진국간, 후진국간을 막론하고 보호무역장벽이 무차별 강화될 것이고,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게 될 국가는 다름 아닌 후진개발도상국들이 될게 틀림없다.

특히, 수출주도형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자국산업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외채(外債)에 의존해온 한국 등의 신흥공업 채무국들에 미치는 무역장벽강화 영향은 실로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채무국들의 수출공세는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무역장벽에 부딪칠 것이며 이로인한 저개발국들의 외채상환불능은 새로운 외채위기를 연속적으로 형성시켜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의 무역분쟁이 더욱 악화되어 90년대까지 지속된다면 세계는 미국, 일본, 유럽, 소련 등의 4개 선진경제중주국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동일한 권역내에서만 서로 특혜무역을 하게 되리라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세계 4번째의 채무국이며, 인구 과밀과 부존자원의 빈곤으로 산업성장의 70%를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경제환경변화가 주는 영향은 어떠할까?

진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의 국민생활수준을 엄청나게 하락시켜야 하며, 내수산업의 육성에서 오는 단 몇푼의 이익이라도 외채상환에 사용되게 될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수출시장의 대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미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산업생산품 공급시장으로서 존속하게될 가능성이 많다.

어쨌건 어느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든지간에 한국으로서는 참기 힘든, 「국가경제 빈곤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한국경제의 비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80년대에 들어서, 부쩍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21세기 「태평양시대」도래설은 막연하나마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한국에게 하나의 회생(回生) 및 성장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생각되는 태평양시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형성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태평양시대의 예언 - 그 허(虛)와 실(實)

그럼 태평양시대란 무엇인가?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과연, 태평양시대가 실현되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설명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가정을 활발히 논의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서진(西進)하고 있는 세계교역의 중심지

B·C 3000년경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처음 국제 교역이 형성된 이래 세계교역의 중심지는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

즉 그리스·로마문명이 전개된 지중해 중심의 교역에서 중세에 이르러 로마와 유럽본토로 이어지고, 중세말에 와서는, 대영(大英)제국의 융성으로 영국·유럽중심의 교역이 형성

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러 신대륙의 독립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한 대서양중심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1세기에는 현재 경제력이 막강해진 일본,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 및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공이 위치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언이다.

● 몰락하고 있는 서구의 윤리 및 가치관

인류문명의 발달사를 「도전과 응전」의 연속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토인비는, 현재 서구는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 팽배로 윤리 및 가치관이 몰락하고 있으며, 반면 동양은 유교 등의 전통적인 철학, 윤리관의 보존으로 현 서구 문명사회에의 도전세력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문명의 주도자는 동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앨빈 토플러도 이와 유사한 예언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세 가지 커다란 물결이 있다. 그 첫째는 농업혁신의 물결이고, 그 둘째는 산업혁신의 물결이며, 그 세째가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제3의 물결」이라고 규정하고, 제3의 물결의 내용은 기술혁신과 가치관 혁신이 주내용을 이룬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미래 사회에의 적응의 두가지 관건은 기술력과 가치관이라는 것이며, 이를 갖춘자가 21세기를 지배하리라는 예언이다.

과연 태평양시대는 역사적인 추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도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태평양 주변국가들은 이러한 태평양시대의 혜택을 입을 것인가?

지중해, 대서양 시대에도 그 주변국가가 모두 그 중심권에서 활동하지 못하였듯이, 태평양시대가 만약 도래하더라도 그 중심국가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국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능력있는 국가의 수가 적거나, 수가 많더라도 합친 경제적 흡인력이 약할 때에는 태평양 중심시대의 꿈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시대는 태평양 주변국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 또한 미리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3. 준비되어야 할 「태평양시대」

태평양지역은 크게 나누어 볼때 아주(亞洲) 태평양지역과 미주(美洲) 태평양지역으로 구성된다. 아주 태평양지역은 말레이반도 동쪽의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동남아제국,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 구성되며, 미주 태평양지역은,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중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상황의 변동이 없는 이상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공업국들은 앞으로 12년후면 시작되는 21세기의 주역으로서 확고 부동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나,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위치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하기 그지없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금부터의 착실한 노력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조건의 예외는 아니다.

● 「태평양시대」 맞을 우리의 대비

태평양시대를 위하여, 그리고 태평양시대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얻기 위한 한국의 대비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요

청된다.

먼저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극히 민주적인 사회풍토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외채의존도를 낮게 유도하며, 자립경제의 내부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대외 투자공신력 및 신용도를 높여 보다 활발한 교역발달에 기여하게 될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국가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 가장 떳떳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것이다.

후자는 국제환경 변동에 따른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 입안이 단순히 현안문제 해결중심이 아니고 장기적인 국가경제 부흥전략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은 육성된다.

둘째, 기업은 대내적으로 국제화시대에 맞선,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내시장에서건, 국제시장에서건 공정거래 및 신용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R & D 투자가 각 기업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사 고용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기유발을 위한,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표상이 되는 기업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지금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 합리적이기 보다는 무모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기업인들의 투자확장 및 비합리적인 자금확보는 일단 기업도산을 낳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목표지향적 기업의 의사결정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전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풍토속에서는 공정거래 및 신용사회의 기틀은 확립될 수 없고, 이는 파급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마저 추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세째, 국민들은 외적으로 화려한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내적인 근면성실한 생활태도를 확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의 역사적 소임관을 가져서 직업의식의 철저화 및 직업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전문인이 될 때 그 국가의 자원은 효용성을 더 크게 가질 것이며,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질 때 그 사회는 안정된 성장의 기반을 굳힐 것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특히 고등교육기관들은 철학이 있는 교육체제 형성에 매진해야 한다.

고도 기술사회가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사회 전반분야에 엘리트들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영재교육 등 엘리트육성에 주력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반 교육을 더욱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은 지금보다 더욱 특성화해야 하고, 고학년 전공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가장 한국적인 기업만이 생존한다.

태평양시대의 도래는 역사적 필연성은 아니나 전기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설령 태평양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그 번영의 기초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맞기 위해 준비한 국가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몰락 모

델을 따르지 않고, 일본의 경제적 성장모델을 따라가 주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21세기까지 영향력있는 국가로 살아남는 대 명제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만약 앨빈 토플러와 토인비의 예언이 적중한다면, 미래 한국의 힘은 우리의 고유한 가치관을 키워가는데 있을 것이고, 기업 사회에서는 비약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기업만이 참다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된다.

비록 한국적 현실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는 모두 어렵지만 유교정신 및 불교정신을 바

탕으로한 한국의 정신관이 뚜렷한 미래는 밝은 것이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인 개개인은 이를 모든 가치척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이런 식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절망-입으로만 절망하며 노력을 포기하는 영터리-이 지난 수십년간 통용되면서 문명을 지배해 왔지만, 이는 단순히 최악일뿐 아니라 도저히 시인될 수 없는 부당행위이다」

즉 인류는 모두 희망적인 미래에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